



나에게 보내는 편지

높고 맑은 밴쿠버의 하늘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참으로 복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유년 시절을 선사하신 우리 아이
들의 부모님 모두께 응원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긴 생활을 하며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습
니다. 문득문득 들어오는 속상한 마음의 소리와 싸울 때도 많
았고요. 2018년 6월달이 되면 두 아이를 돌려 보내고 새로운
아이와 생활하게 될 저는 오늘 그 동안 갖고 있었던 속상한
마음들을 편지 글로 떠나 보내려 합니다.

8년 전 인천공항에서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떠나 온 자가
옛그제 같은데, 아이들은 어느 새, 성인이 되어 저와 함께 지내
던 어린 시절을 잊은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는 한 장면, 한 추억이 모두 사진처럼 찍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가끔씩 던지는 옛 추억거리를 아이들은 그
런 적이 있었나며 대강 웃고 넘길 때가 늘어나는 걸 보면, 서글
퍼지기도 하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걸까요?

받는 사랑을 당연히 생각하는 자녀와 평생을 해바라기처럼
자식만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

이것이 조물주가 만든 원초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처음 이곳 생활을 적응하며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
서 어느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겼던 적이 있었
어요. 날마다 아이들의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달했던 제가, 가
끔 바쁜 일정에 소식이 늦어질 때면 '아이가 자는 이불과 베개
짜여 주세요, 손톱 째어 주세요, 어떤 옷 입었는지 찍어 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볼 때면 그만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
런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이들이 저에게 주
는 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 이모라고 부
르던 아이들의 입에서는 엄마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처
음에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 아이를 포함한 여섯 명의 아이가 제 친자식
이었음 하는 욕심을 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섯 아이를 어느 자리든 예쁘게 차려 입혀 동행하고, 어느
활동이든지 함께 선보이던 그때는 아이들이 제 자랑이었고 자
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학원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며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유
학 생활이 처음인자라... 아이들이 현지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2-3년 계획
했던 유학은 졸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의 입학까지 결실
을 맺게 되었으니 도움없이 졸업까지 마치는 교육은 어려운 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능력과 성취는 모두 갖지 않았기에 계획이
다룰 수 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여섯 아이들 모두가 사교육의 지원을 맘껏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
다. 어떤 아이는 무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그렇
지 못한 아이는 소외감으로 괴로울까 봐 눈치를 보는 일도 있
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이 배우던 활동들을 하고
싶다며 울던 그 아이에게 제 아들의 배움을 반씩 나누어 시켰



던 오지랖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받은 아이와 부모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은 걸 느끼게 되는 현실은 종종 눈물이 나
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는 '고맙다, 나중에 은혜 다 갚을게' 등
의 말은 모든 일이 끝난 지금은 안부 문자 한 번 통 하지 않는
관계가 된 것이죠. 분명히 저는 선한 생각으로 서있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은, 죄 많은 인간인자라 제가 나누었던 그 시
간이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과 이런 생활을 할 때 외부
의 어떤 분에게는 '돈이 참 많은가 보다, 분명히 후회 할 거야.'
등의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괜찮다 생각 하였
습니다.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묻는 관계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면 충분 하였기에 한번도 제 길이 흔들렸던 적이 없었습
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살아온 것일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저나 남편은 많은 아이들과 지내며 잃은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정말 좋은 분들
을 놓치거나 소원해 질 때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니, 학원 한 곳을 보내도 조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 성격에는, 제 아이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전
했다면 '배려해라, 이유가 있을 거야' 등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
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한번씩 있는 소
동이나 건의 사항에도 지나칠 수 없었던 저희는 이 때는 이기
적일 수 밖에 없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될 수 없는 지나 온 세월의 그 분들이 많이 그림
습니다.

며칠 전, 겨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 생활의 활력을 주었던 아이들과의 생활이었지만, 그
사이 저는 많이 늙어있더라고요.

얼굴은 주름과 깨알 같은 기미로 덮여 있고, 이런저런 병들을
갖게 되었어요. 제 손 마디는 굵고 울퉁불퉁 하여 밖에서 보이
기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의 제 최선은 많
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부모님은 말씀하십니
다. 아이와 떨어져 지낸 세월이 허무하다고요.

일년에 두 세 번을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며 아이를 흔드
시고, 저에게 한탄하시는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가끔
어떤 분에게 저는 단지 홈스테이 엄마일테니까요.

그런데, 제 생활을 보셨고 아시잖아요?

아이들과 지내며 외출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다니지 못 하
고 그저 어디든 아이들을 동행하는 저를요. 얼마 전, 아들이 문
습니다. 세 식구만 다녀 온 여행이 언제가 마지막인지들요. 생
각 해 보니 세 가족이 다녀 온 여행의 기억은 유학 생활을 하
는 동안은 없었더라고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온전히 외
아들로 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와 버렸으니까요. 그래도 괜찮
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저희를 잘 아실거예요. 어떤 마음
으로 살아가는지 많게는 15년, 적게는 11년을 보셨으니까요.

시험이나 행사가 있을 시기에는 실수라도 할까 염려 되는 마
음에 밤새워 준비 하고 대기했던 저를 아시죠?

이곳 생활 적지 않게 하였지만, 작은 말들이라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지금도 외부의 엄마들과는 만남을 갖지 않는
이유도 아시잖아요.

제 것은 잘 못 챙겨도 아이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해주는 제 마음도 알고 계실 것 같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한 세월이 긴 만큼 부담감에서 조금만 놓아 주
시면 안 될까요?

부모는 자녀의 일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우린 서
로 잘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마음으로 맺은 엄마였음을 기억해 주셨음 합니다.

아이들에게 관계는 언제나 진심이 우선이라고 하였던 말들이
헛되지 않은 교육이었음을, 그리고 내 진심이었음을 알아주거
를 바라보는 어느 날이었습니.

2018년 5월의 어느 날
아이들의 엄마이모 올림